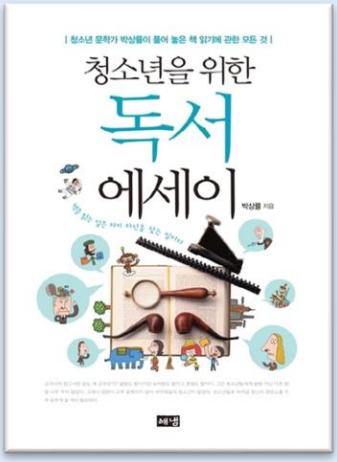
2023년 <청소년 인문학>

청소년을 위한 독서 에세이 / 박상률

주제도서 소개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 자신에게 맞는 책을 찾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애서가(愛書家) 박상률 작가의 독서 체험기를 통해
책 읽는 자의 정신, 소통과 성찰의 즐거움, 창조적인 독서법을 배운다!

우리는 왜 책을 읽어야 할까? 책은 지루하고 졸리기만 한 걸까? 재미있는 만화나 잡지는 공부에 방해만 될까? 아니면 어른이 되어서 읽을 책이 따로 있을까?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 작가 소개 - 박상률 저자

1958년 전남 진도에서 태어나 전남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했다. 1990년 《한길문학》에 시 〈진도아리랑〉과 《동양문학》에 희곡 〈문〉을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1996년에는 '문학의 해 기념 불교문학상' 희곡 부문을 수상했다. 숭의여대 문예창작과 겸임교수를 지내며 계간 ≪문학과경계≫ 편집위원, 월간 ≪학교도서관저널≫ 기획위원, 계간 ≪청소년문학≫ 편집 주간을 역임했다. 2018년에 '아름다운 작가상'을 받았다.
최근작 : <책을 읽다>,<꽃잎 떨어지는 소리 눈물 떨어지는 소리>,<개밥상과 시인 아저씨> … 총 146종

학습 목표

1) 작가의 독서법을 통해 독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2) 자신만의 독서법을 찾기 위해 자기 자신을 잘 알아가는 방법을 표현할 수 있다.

배경지식 다지기

인쇄 매체와 독서

인쇄 매체와 독서

독서의 역사는 인쇄 매체의 역사와 그 흐름을 같이 한다. 동양에 있어서 인쇄술은 지금으로부터 1000여년 이전 시기부터 발달하여, 찰흙과 나무로 된 활자가 만들어져 각종 서적과 불경을 찍는데 사용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고려시대부터 목판 활자 기술이 발달하였으며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 활자본으로 평가받는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줄여서 '직지심경'이라고도 하나 이는 올바른 줄임말이 아니다)이 고려 공민왕 시기인 1377년에 나오는 등 일찍부터 활자 인쇄 기술이 발달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동양에서 활자 기술은 일반인들의 독서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대부분의 활자본들이 불경이나 정부의 서적을 편찬하고 간행하는데 활용되고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서적은 훈민정음 창제 이후 필사를 통한 복사본이 늘어나면서부터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서양에서는 1445년 구텐베르크가 납 활자를 발명하여 서양최초로 금속 활자를 이용한 인쇄술의 시대가 개막되었다. 일반적으로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는 우리 나라의 금속 활자에 비해 수십 년 늦게 발명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파급 효과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유럽 각지로 전파되어 서적의 대량 생산과 유통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흐름에 결정적인 분수령을 마련한 것은 루터의 종교 개혁이었다. 루터는 당시까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만 유통되던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여 대량 인쇄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자국어로 된 성서를 읽을 수 있게 하였고 이를 통해 일반인들의 독서 생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일반인들의 독서 생활 증대는 인쇄술의 발달·보급과 더불어 새로운 사회적 흐름을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전까지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은 이전 세대로부터 전승되어온 삶의 지식을 직접 전해 듣는 것이었다. 그러나 독서를 통한 지식의 습득이 가능해지고 그 범위도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일반인들도 자신이 몸담고 있는 생업 이외의 영역에 대한 지식을 쌓고 이를 통해 세계를 해석하는 적극적 인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인식 능력의 향상과 인식 범위의 확장은 이전까지 억압되어만 왔던 자신들의 존재와 권리에 대한 자각으로 이어졌으며 이와 같은 민중의식의 성장이 프랑스 혁명과 같은 역사적 사건으로 분출되었던 것이다.

매체와 사회 변화

인쇄 매체를 비롯한 매체는 단순히 지식전달의 매개로만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매체의 발달은 곧 사회 체제와 인간 인식의 틀 자체의 변화를 동반한 것이었다.

청소년을 위한 독서 에세이 / 박상률

배경지식 다지기

인쇄 매체와 독서

독일의 매체학 교수인 파울슈티히의 저서 〈근대초기 매체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매체의 발달 사이의 관계를 세밀하게 조명하고 있다. 이 책에 의하면 인류 최초의 매체는 인간의 몸이었다. 고대 사회는 신의 계시를 신전의 신녀나 연극, 춤 등을 통해 인간 사회에 전달하였는데 이때 주된 매개체로 활용되었던 것이 바로 인간의 몸, 육체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매체의 역사는 문자의 보급과 활자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점차 변화를 겪게 되는데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매체의 역사에 있어서 지각변동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파울슈티히에 의하면 매체는 사회적 힘의 관계를 조정하고 공동체의 지향점을 설정하는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사회변화는 매체 변화 없이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체가 사회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강조하면서 종교개혁기 당시 루터를 비롯한 독일의 종교 개혁가들이 그들의 개혁을 실천하기 위해 가장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던 것이 바로 구텐베르크 이후 발달해 온 대규모 인쇄술임을 지적한다.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발명 이후에도 유럽세계는 봉건적 지배 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절대적 진리인 신의 말씀을 성직자라는 매체를 통해 인간 세계에 전달하는 고대적 매체의 양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은 새로운 인쇄 매체인 금속 활자를 통해 일반 대중들 사이에 급속도로 파급되었으며 이는 신의 말씀을 성직자를 매개로 전해 들어야만 했던 이전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형태를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바꾸어놓았다. 이제 일반인들은 자국어로 된 성경을 통해 직접 신의 말씀을 접할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교회와 성직자 중심의 매체를 인쇄 매체 중심의 체제로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인쇄 매체로의 전환은 신문의 발행과 이를 통한 정보의 교류, 대중 문학의 발달로 인한 민중 의식의 성장을 이끌었고 이는 17세기와 18세기에 이르러 프랑스 대혁명과 자본주의의 발전을 가능케 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인쇄 매체의 발달과 소설 문학의 보급은 근대 사회에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널리 전파되고 국민국가가 형성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오늘날에는 당연시되는 민족이나 국가와 같은 개념은 중세 시기와 근대 초기까지 일반인들에게는 실재감이 없는 낯선 개념에 불과했다. 지역적인 교류가 힘든 여건 속에서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자신과 같은 민족, 같은 핏줄의 존재로 인식하는 공동체적 감성은 생겨나기 힘든 것이었다. 그러나 신문의 간행과 대중 소설의 보급으로 인해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 사이에 같은 민족의 구성원이라는 상상의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이와 같은 인식의 변화가 확대됨으로 인해 지역 간의 통합과 민족 국가의 성립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인쇄 매체와 독서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 12. 15., 한림학사)

청소년을 위한 독서 에세이 / 박상률



생각열기

■ **'독서' 또는 '책'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 **책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을 적어 보고, 그 구절을 선택한 이유를 적어 보세요.**

활자는 일단 들여다보는 순간 생각을 하게 한다. 읽는 사람은 생각을 하는 과정을 통해 문장화된 활자의 의미를 따지며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다. 좋은 내용이면 바로 접수할 것이고, 자기의 뜻과 다르거나 나쁜 내용이면 감추어져 있는 의미를 따지게 된다. 그런 까닭에, 나쁜 책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94쪽

청소년을 위한 독서 에세이 / 박상률

주제도서 이해하기

■ 차례 훑어보기

1. 이 책의 목차별 소제목을 골라 궁금한 사항을 질문형으로 바꿔 봅시다.

대제목	소제목 고르기	질문형으로 바꾸기
1장. 책 읽기의 즐거움		
2장. 상상의 나래를 펴다		
3장. 경계 밖 책 읽기		
4장. 책을 통한 삶 가꾸기		
5장. 책 읽는 자의 정신		
6장. 나와 우리를 이해하기		
7장. 소통하는 도서관		

청소년을 위한 독서 에세이 / 박상률

주제도서 이해하기

■ 주제 이해하기

A. 잠을 자다가, 누워서 뒹굴다가, 앉아서 무언가를 하다가, 밤늦게 들어와 문득 책장 앞을 지나다가, 밥을 먹다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나는 불현듯 눈길 끄는 녀석을 골라잡는다. 바로 그때, 그 책이 거기 있었기에 나의 선택을 받는 것이다. 그럼 선택을 받지 못한 책은 한 번도 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영원히 책장 속에 꽂힌 채 빛을 못 쐬고 죽어 가야 하는가? 그건 그렇지 않다. 그런 책도 내 수중에 들어올 때 일단 '검문 ' 을 샅샅이 하고서 자기 자리를 정해 준다 그러기에 나의 서재에 들어온 책은 하나도 빼지 않고 일단 나의 손을 탄다.

B. 엿장수가 묵는 집 사랑방에서 우리들은 살금살금 엿판으로 다가가서 엿판을 덮은 보자기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바닥만 하게 만들어진 엿 조각 하나씩을 집어 들었다. 그러고나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쳐 나오는데 걸음은 왜 그리 더디고 속없는 개는 왜 그리도 짖어 쌓는지! 눈 위에 발자국까지 선명하게 찍어 놓고서도 대단한 개선장군인 양 으쓱거리며 또래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와 보니, 내 손에 엉뚱하게도 책이 쥐어져 있지 않은가! 책이래야 표지고 뭐고 앞뒤로 다 떨어져 나가서 가운데 부분만 남았는데, 그것도 쥐오줌인지 뭔지가 누렇게 배어 있었다.

1) 작가는 가장 마지막으로 이사했던 2000년대 초에 2만여 권 정도였고, 그 이후에도 책은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애서가입니다. 여러분이 책을 대하는 방식은 어떠합니까? 작가와 차이점이 있나요?

2) 글 B)에서 어릴 적 작가의 손에 쥔 책이 [백범일지]였다는 사실을 후에 알게 된 후 버릇처럼 어디를 가나 헌책방이 있으면 들어가 [백범일지]같이 생긴 책을 찾았다고 합니다. 책이라는 분신을 통하여 먼저 간 사람들의 냄새라도 맡고 싶어서라는데요. 이처럼 여러분도 책과 관련된 곳에 가게 되면 찾게 되는 책 분야가 있나요? 이유와 함께 표현해 봅시다.

청소년을 위한 독서 에세이 / 박상률

주제도서 이해하기

■ 주제 이해하기

A. 서양 사람이 쓴 [해리 포터]라는 책이 인기를 얻은 후부터는 그전에 나온 웬만한 판타지 동화는 '시시해져 ' 버렸다. 왜일까? 그전의 동화는 판타지 형식을 빌렸더라도 삶의 진지함을 다룬 데 비해, [해리 포터]같은 판타지 형식이더라도 자본주의를 사는 아이들의 가벼움을 다루었기 때문이다. 가벼움은 자본주의 소비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래서 영화이고 텔레비전이고, 가벼움을 다룬다. 그래야 '장사'가 된다. 문제는 그러한 매체보다 삶의 바탕을 더욱 깊이 들추어내서 보여 주어야 할 문학마저 더욱이 아동 문학마저 갈수록 가벼워진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그야말로 '꿈 같은 ' 이야기들을 잔뜩 늘어놓는 동화들이 마구 쏟아져 나온다. 그러나 정말 제대로 된 '꿈 같은 ' 이야기는 그런 게 아니다.

B. 판타지 동화라고 해서 현실을 무시하고 황당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자다가 꿈을 꾸든 눈을 감고 상상하든, 현실 밖의 세계 역시 현실의 연장이다. 판타지 세계 역시 현실을 바탕으로 하여 재구성되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현실 세계는 판타지 세계를 통해 더 잘 들여다보이는지도 모른다. 여기에 판타지 문학의 존립 근거가 있다. 문학이 심심풀이 땅콩이 아닌 이상.

1) 저자는 자본주의를 사는 아이들은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소비문화와 찰나적인 재미에 흠뻑 빠져 있음을 지적합니다. 삶을 소비문화로 인식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2) 문학의 특성은 허구성과 개연성, 진실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은 판타지 문학 작품을 떠올려 문학의 특성에 맞게 적은 후 어느 면이 많이 강조되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작품		
허구성	개연성	진실성

2023년 <청소년 인문학>

청소년을 위한 독서 에세이 / 박상률

주제도서 이해하기

■ 주제 이해하기

A. '나쁜 책은 없다.' 내가 이 말을 강연회 제목으로 내건 일차적인 이유는 좋은 책이든 나쁜 책이든 도대체 책이라고는 읽으려 하지 않는 요즘 세태 때문이다. 일단 읽어 보기라도 해야 좋은 책인지 나쁜 책인지 가늠이나마 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이차적으론 실제로도 나쁜 책은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내가 어린 시절을 보낸 1960~70년대는 책 자체가 귀한 시절이었다.

B. 독풀도 쓰기 나름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지 않겠는가. 게다가 들 가운데레 흐르는 흐린 물도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고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는 법이다. 그러니 <u>책 읽기는 책이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문제다.</u>

1) 저자가 말한 '나쁜 책은 없다.'라는 문장에 대해 여러분은 동의하나요?

2) 어떤 책이든 읽되,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문제라는 문장에서 독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3) 책이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책을 읽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4) 책을 많이 읽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청소년을 위한 독서 에세이 / 박상률

주제도서 이해하기

■ 주제 이해하기

A. 내가 어린이와 청소년 독자를 의식하며 글을 쓴 후부터 변함없이 그럴싸하게 생각하며 되새기는 말은 루이스의 말이다. “열 살 때 가치 있게 읽은 책은 쉰 살이 되었을 때 읽어도 열 살 때와 똑같이, 아니 오히려 그때보다 더 읽을 가치가 있어야 한다. 어른이 되어서 읽을 만한 가치가 없는 책은 어렸을 때도 읽을 필요가 없던 책이다.” 소설가 이외수는 “사람이 책을 안 읽는다고 부끄러워할 것 없잖아요?”라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지. 책 안 읽는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고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거든.!” 데카르트는 “좋은 책을 읽는 것은 예전에 살았던 가장 뛰어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베이컨은 “어떤 책은 맛만 보면 되고, 어떤 책은 그냥 삼키고, 어떤 책은 잘 씹어서 소화시켜야 한다 " 라고 했다.

B. 책의 쓰임이 올바르지 않으면 책은 독이 되기도 한다. 조선시대의 그 많은 당쟁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들이 받들어 모시던 맹자조차도 “모두들 책을 믿는다면, 책이 없는 것만 못하니라.”라고 했거늘 그들은 어쩌자고 책 속의 자구에 그토록 매달렸을까? 같을 글을 읽고도 달리 해석하고 작은 차이에도 파를 달리하는 건 책의 탓인가? 사람의 탓인가? 이런 상황을 일러 서양 사람 에머슨은 “책은 유용하게 쓰였을 때 가장 좋은 것이 되고, 악용되었을 때는 최악의 것이 된다.”라고 했겠지.

1)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책읽기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온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2) 책 읽기가 유용하게 쓰일 때와 악용될 때는 어떤 예가 있을까요?

유용할 때	악용될 때

3) 다음은 존 로크의 말입니다. 사색의 힘이란 무엇일까요?

“독서는 지식의 재료만 줄 뿐이다.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건 사색의 힘이다.”

청소년을 위한 독서 에세이 / 박상률

주제도서 이해하기

■ 주제 이해하기

4) 독서뿐만 아니라 사색의 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완벽한 독서일지라도 성찰과 사색이 없다면 올바른 독서가 아닐까요?

5) 독서가들의 명언이 있더라도 나에게 맞는 책이 아니라면, 또는 책을 읽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겠지요? 나에게 맞는 독서법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나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권의 책이라면 어떤 책으로 표현될까요?

책 제목	
장르	
담고 싶은 내용	
추천하고 싶은 연령	

청소년을 위한 독서 에세이 / 박상률



글쓰기

■ 독서에세이 쓰기

* 에세이란? 개인의 상념을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한두가지 주제를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논하는 비허구적 산문양식이에요.

책 잘 읽어 보았나요? 저자는 자신의 일생에 영향을 준 여러 책들과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책이 중요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책을 통해 성장한 순간을 떠올려 에세이를 써봅시다.

1. 평소 책 또는 독서에 대한 생각
2. 저자를 통해 알게 된 내용
3. 실생활에서 책의 중요성이 적용된 예를 통해 독서에 대해 통찰하게 된 내용 쓰기
4. 나에게 맞는 독서법 소개

제목	
처음	
중간	
끝	

청소년을 위한 독서 에세이 / 박상률



글쓰기

제목 :